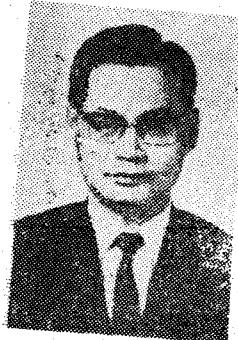


사료수급 장기계획 시안 (3)



(1973년 ~ 1983년)

(3) 요약

(1) 사료수요공급 추정

가. 1983년도에 이르면 농후사료의 수요량은 1973년의 3,671천%의 2.1배인 7,866천%으로 늘고 조사료 수요량은 현재 4,365천%의 2.2배인 9,621천%에 달한다 (년평균 증가율 0.1%).

곡류수요량은 1973년도에 1,581천%이던 것 이 1983년에는 3,165천%으로 증가하고 강류는 1,581천%으로부터 3,670천%으로, 비류는 509천%로부터 1,031천%으로 늘어나게 되며 배합사료의 수요량은 1973년에 약 1,000천%이던 것이 1983년에 이르면 약 3,000천%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나. 공급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후사료 자급도는 86%로서 14%의 농후사료는 도입에 의존해야 한다. 한편 곡류와 어박류의 자급도는 70% 이상이나 유통곡류의 자급도는 57%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곡류, 강류, 어박류의 공급비율은 28 : 51 : 7로서 어너지와 단백질의 부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이러한 비율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바이다.

다. 현재 451,000%의 곡류(자급도 53%)를 도입하고 있으나 장차 도입량이 늘어나서 19

한인규
〈서울대농대 교수·농박〉

83년에 1,233,000%의 곡류(자급도 43%)를 도입해야 하고 도입에의 의존도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계획에는 1974년에 130,000%의 보리, 160,000%의 고구마가 곡류로 쓰이게 되던 것이 그후 매년 20,000%씩 도합 40,000%를 더 쓴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강류의 현재 공급량은 955천%이나 1983년에는 이것의 2.25배인 2,148천%이 공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강류의 도입도 예상해야될 것이다. 어박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자급도는 앞으로 계속 향상될 것이며 1983년에도 연간 70,000% 내외의 박류이외에는 국내 산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실작물의 재배장려와 어분생산의 양산체재 및 단세포 단백질의 개발이 요청되는 바이다.

라. 1973년 현재 조사료의 공급량은 4,365천이나 연평균 8.1%씩 증가하여 10년 후에는 9,621천%의 공급이 요청된다.

① 목초의 공급량은 1973년에 불과 599천%이던 것이 1983년에는 3,570천%으로 6.0배나 늘고 (매년 한우용 야초와 벗짚의 2%씩을 목초로 대치함)

② 야초의 공급량은 1,958천%으로부터 10년후에는 2,810천%으로 약 1.4배 증가하고 ③ 벗짚 (또는 기타 조사료)의 공급량은 1,808천%으로부터 1983년에는 1.8배로 늘어나서

3,241천%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사료생산자금대책

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보리, 옥수수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해도 곡류의 자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리나 고구마는 양돈 사료에 쓰이는 곡류의 20%씩을 대체할 수 있다. 부족되는 곡류는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부득이 도입을 해야될 경우에는 미국의 옥수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입사료의 다종화(多種化)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금 원료사료의 국제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저질사료가 유통되어 가축의 생산을 저해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나이가서는 원료사료 구매 및 사료가격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료안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나. 고구마의 사료화를 위해서는 ① 건조시설을 보강하거나 ② 서강사료 또는 보리의 사료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 조사료는 1983년 까지도 완전자급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지조성이 급선무라 하겠다. 1983년대까지 연평균 38,500ha씩 도합 380,000ha의 초지가 추가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초지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현재 약 5,000천%으로 추산되는 야초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 벗진은 한우와 유우의 월동사료로 쓰이고 있으나 영양소 함량이 낮고 기호성과 이용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잔유농약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점차 담리작 사료작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주로 중북부) 산재되어 있는 286,656ha의 담리작 이용가능답에서 사료작물이 재배되어 지기를 바란다.

마 조사료 이용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건초만들기 엔실레지 만들기 건초큐브등 조리기술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바. 농산가공부산물, 제약부산물, 발효사료수산물 및 그 가공부산물, 양잠부산물, 축산

폐기물, 단세포단백사료, 농소사료, 녹사료, 해조류 등의 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시켜면 총 536,550의% 신규사료 자원을 포착할 수 있다.

(4) 건의

정부는 사료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안정과 품질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정부는 고구마로서 20%정도의 곡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정책과 건조시설을 지원할 것.

(2) 국산 보리와 옥수수로서 또 다른 약 20%의 곡류를 대체하도록 증산대책과 가격정책을 배울 것.

(3) 국내사료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장차 부족이 예상되는 강류 대치용(녹사료, 해조류, 축산폐기물사료 등) 사료를 개발하고 어박류의 완전자급을 위하여 시설보충은 물론 새 자원을 개발할 것.

(4) 전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후사료(주로 곡류)의 도입을 위한 외화 사용을 억제하지 말 것.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통하여 사료값의 안정을 기할것. 사료의 품질개선을 통하여 가축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대책을 수립할 것(사료가격 및 축산물의 현실화 또는 사료의 이중가격 등)

(5) 조사료의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평균 39,000 ha의 초지를 조성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983년 까지 446,000ha의 초지를 확보할 것) 목초종자와 비료의 공급체계를 확립할 것.

(6) 산야초의 활용을 증가하기 위하여 입산금지조치를 완화할 것.

(7)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이용이 가능한 (현재는 불이용) 286,656ha의 담리작 가능답에는 담전작으로 이타라안 라이그라스나 청예호맥을 심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할것.

(8) 사료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조리가공기술을 보급할 것.